

린리밍의 『아Q후전』 속의 ‘식인’ 주제 읽기

裴桃任*

目 录

1. 들어가며
2. 형장에서 아Q를 구한 허 선생
3. 아Q의 총성스런 책사 구주 선생
4. 평조팔백수신약과 아Q 사적관
5. 나오며

1. 들어가며

루쉰(魯迅, 1881-1936)은 『광인일기(狂人日記)』(1918)에서 광인의 입을 빌려 중국이 지난 4천년 동안 ‘식인’ 습관에 물들어 있었음을 호되게 질타했다. 또 『아Q정전(阿Q正傳)』(1921-1922)에서 ‘잡아먹힌’ 아Q의 비극을 통해 중국인의 정신 개조의 절실함과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광인이 폭로한 식인의 원흉은 인의도덕(仁義道德)이었고, 허 선생(何先生)과 구주 선생(古久先生) 등을 그것의 신봉자로 지목했다. 허 선생은 중의(中醫)로 『광인일기』에서는 광인의 맥을 짚고 『내일(明天)』에서는 단씨 넷째 아주머니(單四嫂子)의 아기 바오얼(寶兒)을 진료했다. 『콩이지(孔乙己)』에서는 콩이지가 그의 집에 들어가 책을 훔치다 들켜서 매달려 두들겨 맞고, 『비누(肥皂)』에서는 쓰밍(四銘)의 집을 찾아온 목소리가 크기로 유명한 허 도통(何道統)으로 등장했다.

* 韓國放送通信大學校 中語中文學科 講師

자오구이 영감은 내게 무슨 원한이 있는 것일까? 길 가는 사람은 또 내게 무슨 원한이 있는 것일까? 20년 전에 구주 선생의 낡은 장부를 밟아서 그를 불쾌하게 한 것뿐인데. 자오구이 영감이 구주 선생을 아는 건 아니지만, 틀림없이 소문을 듣고 부추겨 길 가는 사람이 나를 미워하게끔 만든 것이라.

.....

나는 나 자신을 못된 놈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구주 선생 집 장부를 밟고 난 뒤로는 말하기 어렵게 되었다.¹⁾

‘허 선생’의 전통 ‘의술’, ‘책’, ‘도통’과 ‘구주 선생’²⁾과 그의 ‘낡은 장부’는 192,30년대 루쉰의 전체 소설 속에서 중국 전통 사회와 예교에 대한 비판에서 약방의 감초 같은 역할을 했다. 1994년에 린리밍(林禮明, 1943-)은 『아Q 정전』을 바탕으로 장편소설 『아Q후전(阿Q後傳)』을 썼다.³⁾ 린리밍은 아Q가

- 1) 魯迅, 「狂人日記」, 『魯迅小說全集』, 武漢, 長江文藝出版社, 10-12쪽.
- 2) 첫째, ‘古久先生’은 역사상 ‘고대의 성인 현자’로 만들어 모셔져온 반동적 통치자를 암시; 둘째, ‘古久’는 ‘古舊’의諧音이고, 반동적 통치를 옹호하는 봉건세력을 지칭; 셋째, ‘古久’는 봉건 역사에서 상류의 가장 악랄하게 사람을 가장 많이 해친 ‘孔丘’이다. 이는 음운학에 정통한 루쉰이 雙聲疊韻의 방법으로 공자에게 붙여준 대명사이다.(張向天, 『魯迅詩文生活雜談』) 이러한 견해들은 모두 ‘구주’가 봉건세력을 가리킨다고 여긴 것이다. 北禾, 「關於古久先生的幾種解釋」, 『魯迅研究資料8』, 北京, 北京魯迅博物館魯迅研究室, 1981, 98쪽.
- 3) 린리밍(林禮明)은 푸젠(福建) 푸칭(福清) 사람이고, 공산당원이다. 1963년 입대 후, 1966년부터 작품을 발표했다. 1983년 성인독학대학(成人自修大學)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기자 및 잡지편집 등에 종사했다. 1994년 중국작가협회에 가입했다. 장편소설 『귀부인과 천한 노파(貴婦賤婆)』, 『손빈과 방연(孫臏與龐涓)』, 『이사와 조고(李斯與趙高)』, 보고문학집 『후소 프리즘(扶桑多稜鏡)』, 전문저술 『귀역 세계(鬼蜮世界)』, 『중국의 귀신문화(中國鬼文化)』, 『유학 이야기(儒學故事)』, 『동양의 귀신문화(東洋鬼文化)』, 『서양의 귀신문화(西洋鬼文化)』 등을 출판했다. 『아Q후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高少鋒의 「帶着含淚的微笑索他——評林禮明的長篇小說『阿Q後傳』」(吳亦文, 『文學美學論稿』, 海峽文藝出版社, 1997, 129-133쪽), 林微潤, 「評長篇小說『阿Q後傳』」(『軍中歲月』, 北京時代弄潮文化發展有限公司, 2010, 81-84쪽)과 『아Q후전』의 앞부분에 첨부된 許懷中的 「文學創作上的大膽嘗試——讀林禮明『阿Q後傳』隨想」(1-6쪽), 孫紹振의 「順境中的阿Q——林禮明長篇小說『阿Q後傳』序」(1-4쪽) 등이 있다. 린리밍은 1999년에 『아Q후전』을 『아Q신전(阿Q新傳)』이란 명칭으로 海風出版社에서 재출판했다. 두 작품의 내용이 같고, 목차 제목을 바꾸었을 뿐이다. 본고에서는 1994년 『아Q후전』(福州, 海風出版社)을 분석 텍스트로 삼았다.

너무 억울하고, 그리고 구주 선생과 허 선생이 전신의 작은 역할에 만족을 못한 듯이, 루쉰의 창작 취지를 계승해 아Q와 구주 선생과 허 선생을 재창조했다. 이를테면 루쉰은 아Q를 총살시켜 영원히 '씨도 못 받을 놈'으로 눈을 감게 만들었으나, 린리밍은 우 어멈(吳媽)과 허 선생의 교묘한 제후에 따라 새 삶을 얻은 아Q가 우 어멈과 결혼해 두 아들을 낳아 불효를 저지르지 않게 했다. 또 아Q에게 혁명에 참가해 구주 선생을 책사로, 허 선생을 형 집행대장으로 수하에 두게 했다. 이 과정의 변용 관계를 보면,

[표] 『아Q정전』에서 『아Q후전』으로 '아Q'의 변용 관계

제목		아Q정전	아Q후전	
창작배경	저자	루쉰	린리밍	
	창작연대	1921-1922년	1994년	
	장르	중편소설	장편소설	
	시간배경	신해혁명 전후	신해혁명 전후-1940년대 중기	
	공간배경	웨이창(未莊)→시내	웨이창→허씨마을(賀家坳)→소산골(枯山村)→웨이창 일대의 Q왕부(Q莊府)	
인적사항	성명	자오 나리가 성 불허 이름 아Q	아나오(阿鳥)→Q왕 어른(Q莊家)	
	나이	곧 30세가 됨	30세 직전-55세 전후	
	교육정도	일자무식	개경사에서 문(독경)·무(종과 목어 치기) 학습→약간 유식	
	직업	낱팜팔이꾼→실직→장물수수 및 판매	개경사의 중→금박공장의 운반공→과란깃발의 혁명군→Q왕부 두목	
	부인	1	없음 (연애의 비극 세 번)	우 어멈(뒤에 정신분열)
		(2)		또 다른 젊은 비구니와 풍파 (늙은 비구니가 됐다)
		(3)		뱃사공 궁씨의 젊은 작은엄마와 풍파(죽음)
		4		자오메이쯔(자오 나리의 손녀)
		(5)		? (마취약에 취해 정신 없음)
	아들	1	없음	아W(허 선생의 아들)→형다(亨達)
		2		아S(친아들)
신체특징	머리통의 부스럼자국			
보양비결	없음	구주 선생이 상납하는 이리골(狼子村)에서 만들어진 팽조팔백수신약(彭祖八百壽神藥)을 먹음		
생사여부	절도죄로 총살	우 어멈과 허 선생의 도움으로 새로이 삶		

본고에서 앞의 [표]의 내용을 바탕으로 『아Q후전』의 ‘식인’ 주제를 둘러싼 아Q의 인생 역전과 혁명 성공 그리고 그의 조력자 구주 선생과 허 선생의 실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형장에서 아Q를 구한 허 선생

1) 우 어멈

(1) 아Q의 생사여탈권

『아Q정전』에서 아Q의 목숨은 파리처럼 한순간에 단죄되고 만다. 혁명(신해혁명)이 성공하였다면, 백성을 다스림에 준엄한 법의 심판을 따라야함에도 불구하고 아Q는 혁명의 수혜자가 되지 못했다. 이는 본보기로 징계하는 일이 급했던 파총(把總)의 독단이 빛은 결과였다.

아Q가 어리벉벉하게 좌우를 둘러보니 개미떼처럼 사람이 따르고 있었다. 뜻밖에 길가의 사람 떼거리 속에서 우 어멈의 모습을 발견했다. 정말 오래간만이였다. 그녀는 **시내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이다.……수레가 쉬지 않고 나갔다. 아Q는 갈채 소리 속에서 눈알을 굴려 우 어멈을 보았으나 그녀는 아예 그를 전혀 못 본 듯이 그저 사병들이 메고 있는 총만을 정신없이 바라보고 있었다.⁴⁾

런리밍은 죽음으로 가는 길목에서 우 어멈이 아Q의 눈에 들어왔다는 사실에 대해 주목한 것 같다. 아Q의 눈에 우 어멈이 어떻게 보였는지 간에, 우 어멈은 이때 아Q를 구할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사병들이 메고 있는 총에서 나온 총알이 어떤 결과를 빚어낼 것인가에만 신경을 썼을 것이다. 우 어멈이 **시내에서 일하고 있었던** 사연은 이렇다. 이립(而立)의 나이를 앞둔

4) 魯迅, 『阿Q正傳』, 『魯迅小說全集』, 武漢, 長江文藝出版社, 2005, 107-109쪽.

아Q가 그때 자오 나리 댁에서 날뚱으로 쌀을 찢으러 갔다가 충동적으로 “너, 나랑 자, 나랑 자자!”하고 우 어멈을 추행했다. 이 일로 인해서 우 어멈도 웨이쵡(未莊)에서 더는 살 수 없게 되었다. 우 어멈도 행실이 바르다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 리가 없다고 여긴 마을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았다.⁵⁾ 소갈머리 없는 아Q가 일거리가 끊겨 굶주리다 시내로 나간 것처럼 우 어멈도 더는 자오 나리 댁에서 종살이를 할 수 없게 되자 낡은 옷가지를 싸들고 무작정 시내로 들어갔다. 그녀는 이곳저곳을 전전하다 혁명당 파총 수하의 형 집행대장 허 선생 댁의 첫째부인의 몸종이 되었다. 이 허 선생의 첫째부인은 반반하게 생긴 우 어멈을 이용해 허 선생이 좋아하는 어린 첩을 떼어놓을 계락을 꾸몄다. 그 기회를 이용해 허 선생에게 접근할 수 있었던 우 어멈은 아들을 낳아 줄 ‘씨받이’가 되는 대가로 아Q의 구명을 요구했고, 둘이 계약서도 썼다.⁶⁾

우 어멈과 허 선생이 아Q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함께 모의해 아Q에게 생명의 은인이 된 과정을 보면, 허 선생은 형장에서 총을 쏘아 아Q를 쓰러뜨린다 → 상부에 아Q가 총살되었다고 보고한다 → 시체보관소에서 우 어멈은 가족의 명의로 쓰러진 아Q를 관에 넣는다 → 미리 구해놓은 오봉선(烏篷船)에 아Q의 관을 싣고 떠난다. 이렇게 해서 우 어멈은 아Q의 관과 함께 배를 타고 링허(陵河)를 거슬러 올라갔다.

(2) 새 삶과 새 생활

우 어멈은 오른팔에 총상을 입은 아Q가 정신을 차리자 아Q의 관을 강물에 던져버리고, 자오씨나루터(趙家渡口)를 지나 검은바위나루터(黑石頭渡口)에 이르러 배에서 내려 가마꾼을 불러 이동해 검은바위골(黑石頭村)이란 곳에서 발길을 멈추었다. 아Q는 이곳에 있는 절 개경사(開慶寺)의 주지 위완룡 스님

5) 아Q在未莊呆不住走了, 吳媽因涉嫌與阿Q有“勾當”, 也呆不下去。……不久, 類似的遭遇也降臨到吳媽身上。林禮明, 『阿Q後傳』, 福州, 海風出版社, 1994, 5쪽.(이하 저자, 쪽수만 표시함)

6) 林禮明, 17쪽.

(元隆師父)이 준 약으로 상처를 치료하고, 또 그 인연으로 출가하였다. 우 어멈은 그 근처 허씨동네(賀家坳)의 토곡사(土穀祠)에서 지내며 구걸로 살아가게 되었다. 또 두 사람은 그들의 사연을 알게 된 허씨동네의 어떤 중년 아낙네의 주선으로 날을 잡아 부부의 연을 맺고, 두 아들을 얻게 된다.

아Q는 Q장 두목이 된 뒤에 저 자신의 사적관을 짓고 공적비를 세울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 희생한 우 어멈 사적관과 열녀비를 세워주어야 마땅했다. 하지만 아Q는, 『아Q정전』에서 말한 대로, 우 어멈이 전혀 ‘바르지 않고(不正經)’, ‘바른 체 한다(假正經)’고 여겼다.

뒷날 사람들은 우 어멈이 정말 미쳤다고 말하기도 하고⁷⁾ 히스테리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그녀는 확실히 정신이 오락가락하게 되었다.

2) 아Q의 두 아들

아Q가 중이 된 뒤, 우 어멈이 허씨동네 서시신(西施神)을 모신 토곡사에 살면서 일대를 돌아다니며 구걸할 때 입덧을 시작했다. 또 우 어멈이 검은바위 나루터에서 배를 타고 자오씨나루터로 갔을 때 그 일대에서 조선업으로 돈을 번 궁씨(老拱)의 아들이 아Q를 넣었던 관을 강물에서 건져 올려 제 생색을 내느라고(효도하는 아들인 척 하느라고) 젊은 작은엄마에게 준 일을 알게 되었다. 이에 밀도 끝도 없는 상념에 빠진 우 어멈이 무뢰배 두 명에게 잡혀 곤욕을 치를 때, 그녀를 구해준 이는 바로 허 선생이다.

이때 허 선생이 관심을 갖는 것은 우 어멈의 안전이 아닌 듯 물었다.
 “우 어멈, 자네 있어? 있어? ……생겼어, 아니야?”
 우 어멈이 알아채고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있어요? ……생겼어요……저에게 병이 있어요! 있어…….”
 “생겼어. 용종이 생겼어, 병도 있어! ……결결, 좋구나!”
 허 선생은 자루 속에 두었던 주둥이가 용 모양으로 생긴 구리 술주전자를 꺼내들고 말에서 뛰어내려 우 어멈 앞으로 다가서며 말했다.

7) 吳媽不堪承受沈重的心理打擊，真的瘋了。林禮明，272쪽.

“이긴 약이야, 팽조팔백수신약이네, 자네가 마시면 용종을 튼튼하게 지 키고 자네의 모든 병을 없앨 거네.”⁸⁾

이 토곡사는 아Q가 살던 웨이쑹의 토곡사가 아니라 허씨동네의 토곡사이다. 여기서 우 어멈은 첫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세 해가 지났을 즈음에 둘째 아들을 낳았다.

[표] 아Q의 두 아들 비교

	큰아들	작은아들
아버지	긴 두루마기 똥보(금박공장 사장)	아Q
어머니	우 어멈	
이름	아W (五斤 wǔjīn)	아S (四斤 sìjīn)
나이	세 살 터울	
차이	건강하고 다부지다 목소리가 우렁차다 팔다리를 힘차게 팔딱거린다 채면서 잘 움직인다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눈썹이 잘생겼다 울음소리가 날카롭고 가늘다 깡마른 몸뚱이에 장식품처럼 작은 손 발이 달려있다 얌전하고 조용하길 좋아한다 울지도 떼를 쓰지도 않는다
아Q의 태도	잘생기고 활달해서 좋았다	콧방울이 너무 크다 입이 너무 튀어나왔다 아Q는 제 약점 두 개 더 생긴 듯 싫었다
운명의 변화	양아들로 갔다 서양의 유명한 법률대학에 입학했다	이리에게 물린다 평생 다리의 고통을 안고 산다
진실	아Q는 표면적인 친아버지 허 선생은 생물학적 친아버지 긴 두루마기 똥보는 양아버지	아버지 아Q는 자신의 다리에 총을 쏘아 평생의 고통을 준 범인이다

8) 此刻, 何先生關心的好像不是吳媽的安全, 問: “吳媽, 你有? 有?……有了沒有?” 吳媽心有靈犀, 低下臉說: “有?……有了……我有病! 有……” “有了。有了龍子, 也有病! ……哈哈, 好!” 何先生取下放在挎包裏的龍嘴銅酒壺, 跳下馬來, 走到吳媽跟前, 說: “這是藥, 彭祖八百壽神藥, 你喝了, 保龍子康健, 保你百病都除。” 林禮明, 61-62쪽.

『풍파(風波)』에서 낳을 때의 몸무게로 아명을 붙이듯이,⁹⁾ 큰아들은 다섯 근 정도라서 아W라 짓고, 둘째아들은 네 근 정도라서 아S라고 지었다. 두 아들이 금방 태어났을 때는 별반 차이가 없었으나 한 살이 되면서 두 아들은 확연하게 유전적인 차이를 보였다.

아무리 멍청한 아Q일지라도 완전히 판관인 두 아들의 모습에서 그들의 어머니의 행실에 의혹을 품는 거야 당연했을지 모르지만, 아Q의 남에게 덮어씌우기 주의가 다시 고개를 쳐들었다. 아Q는 『아Q정전』에서 추행한 그 비구니가 아니라 개경사 근처의 비구니암자(尼姑庵)의 젊은 비구니와 일을 벌였다.

아Q는 늘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우 어멈, 아W, 아S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맞아, 아S는 나를 닮고, 아W는 나를 닮지 않았어. 아W는 우 어멈이 어떤 놈이랑 붙어서 낳은 거야. 너 우 어멈이 딴 놈하고 붙었는데, 나라고 뭘 못해?’¹⁰⁾

『아Q정전』에서 아Q는 성도 이름도 본적도 분명하지 않고 행장도 분명하지 않았다.¹¹⁾ 아Q에게 두 아들이 생기기에는 했으나 그 두 아들도 이름과 본적이 흐릿하고 내력도 분명한 인물은 아닌 것 같다.

“아빠, 나 총알!”

아Q가 아이에게 갖고 놀 총알을 주었다.

“아빠, 나 이 총알로 이리를 쏴 거야.”

“그래, 재밌겠다, 이리를 쏴, 이리를 모조리 쏴 죽여.”

“사람도 쏴 거야. 총알로 나를 다치게 한 사람을 쏴 죽일 거야!”¹²⁾

9) 魯迅, 『風波』, 『魯迅小說全集』, 武漢, 長江文藝出版社, 2005, 52쪽.

10) 阿Q總睡不着, 吳媽、阿W、阿S湧在他腦海裏。是的, 阿S像我, 我W不像我。阿W是吳媽跟誰私通生下來的。你吳媽能跟別人私通, 我就不能麼? 林禮明, 71쪽.

11) 魯迅, 『阿Q正傳』, 『魯迅小說全集』, 武漢, 長江文藝出版社, 2005, 73쪽.

12) “阿爸, 我要子彈!” 阿Q就給他子彈玩。“阿爸, 我要用這子彈打狼。” “好, 有趣, 打狼, 把狼統統打死。” “還要打人, 用子彈打死打傷我的人!” 林禮明, 234-235쪽.

큰아들은 '진실'을 모른 채로 아Q를 찾아와 양아버지의 처형에 대한 합법성과 정당성을 따진다. 둘째아들 역시 '진실'을 모른 채로 두고두고 복수를 다진다. 아Q도 심증만 갖고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우 어멈을 푸대접했다. 우 어멈이 정신분열증에 걸렸기 때문에 그들은 '진실'을 알기 어려울 것이다.

3) 허 선생

『광인일기』에서 광인의 형은 의사 허 선생을 청해와 동생을 진찰받게 했다. 이때 광인은 허 선생이 망나니의 화신이란 것쯤은 알고 있었고, 맥을 본다는 구실로 살집이 어떤가를 보는 것인 줄 간파했다.¹³⁾ 광인이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이 허 선생의 사람됨과 검은 속셈을 진즉 꿰뚫어본 것이었다. 그것은 살인을 위한, 식인을 위한, 치부(致富)를 위한 꾀꿀이 수작이다.

허 선생이란 자는 이리골 사람이다. 과거에 그는 자오구이 영감(趙貴翁), 구주 등 사회 명사들과 함께 팽조팔백수신약종상 사업을 했다. 이 약종상이란 허울 좋은 간판을 내걸고 사람을 죽이고 잡아먹고 사람피를 팔고 사람고기를 팔고 사람 피와 살로 가공품을 만드는 짓을 해서 억수로 돈을 벌었다. 약종상에서 허 선생은 의사를 사칭해 의사 일을 한다. 도살장에 들어온 사람을 진찰하는 척하면서 살집이 어떤가를 본 다음에 잡는 것이다. 하얀투구에 하얀갑옷 군대가 혁명할 때 허 선생은 즉각 가담했다. 당시 시내 파총 수하에 형 집행 숨씨꾼 한 자리가 비었고, 허 선생의 사람 죽이는 재주가 유용하게 쓰였으므로 형 집행대장에 올랐다. 혁명 전에 허 선생은 시내에서 결혼을 해 이미 부인 하나에 첩 둘이 있었다. 위풍이 대단했다. 혁명 뒤에도 그 위풍은 전혀 줄지 않았다. 투기를 잘하고 칼날 아래 사정을 봐주고 뇌물을 받아 계속 돈을 벌었다. 이 사람이 사람 피 빨아먹기를 좋아하니 '인혈 망나니'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다.¹⁴⁾

13) 魯迅, 「狂人日記」, 『魯迅小說全集』, 武漢, 長江文藝出版社, 2005, 13쪽.

14) 何先生者, 狼子村人。過去他曾和趙貴翁、古久等社會名流合開“彭祖八百壽神藥行”, 以此藥行為招牌, 行殺人吃人、賣人血人肉和人血人肉加工品的勾當, 賺了不少錢。何先生在藥行的職司是偽裝醫生, 給將進屠場的人“看病”, 即揣一揣肥瘠, 再行殺戮。白盔白甲革命時, 何先生應時參加了, 當時城裏的把總正缺一個行刑能手, 何先生的殺人本事派上了用場, 當上了

다시 말하면 『아Q정전』에서 아Q에게 총을 쏜 자가 바로 허 선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뒤 시내 혁명당의 파총 수하의 형 집행대장 허 선생은 검은군대(黑軍)에 가담해 두목이 되었고, 검은군대가 자오씨나루터를 점령했을 때 동업자 구주 선생이 찾아왔다.

두 사람은 굳게 악수했다. 난세에 그들은 각자 발 빠르게 움직여 각자 자기 주인을 모시고 공을 세우고 업적을 쌓아 당대에 명성을 날렸다. 동시에 각자 또 몰래 이리골의 팽조팔백수신약중상에 ‘원료’를 보내고 큰돈을 벌었다. 그 신약이 그들 몸의 건강도 지켜주었다.¹⁵⁾

허 선생이 별 의심을 받지 않고 아Q의 수하에 들어오고 또 형 집행대장까지 된 것은 구주 선생과의 결탁에 따라 착착 진행된 것이다. 허 선생은 첫째, 아Q가 죽이라고 하면 죽이는 일을 한다. 둘째, 자신의 친아들을 살린다.¹⁶⁾ 셋째, 구주 선생 등과 함께 팽조팔백수신약의 재료를 조달 및 판매한다. 그의 형 집행대장이란 직책은 허울 좋은 이름이고 그 직책을 이용해 그가 진정으로 하는 일은 인간 사냥이다. 그야말로 숨은 망나니이다.

行刑隊長。革命前，何先生已在城裏安家，有一妻二妾，威福得很；革命後，威福不減當年，他善投機，借刀下留情收受賄賂，繼續發財。此人嗜飲人血，有“人血劊子手”雅號。林禮明，10쪽.

15) 兩人緊緊地握手。在亂世中，他們各奔東西，各伺其主，建功立業，顯赫一時，同時各自又都暗暗地爲狼子村那彭祖八百壽神約行輸送“原料”，大賺其錢。那神藥，也大健其身。林禮明，263쪽.

16) 你如果不走，明天就要行刑。孩子，今晚你一定要逃跑，一定!……“林禮明，281쪽; 그는 자신이 아버지임을 밝히지 못했고, 눈물로 아W에게 오늘밤 안에 빨리 떠나라고 부탁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아Q의 명령을 받들어 아들을 죽여야 했다.

3. 아Q의 총성스런 책사 구주 선생

1) 아Q의 혁명

(1) 혁명에 투신하다

개경사에서 제법 잘 나가는 중이었던 아Q는 제 옛날 버릇을 고치지 못해 젊은 비구니와 사고를 쳤다가 발각되어 그 길로 파문당했다. 또 다시 살 길이 막막해진 아Q는 빈털터리인 채로 무작정 배를 탔다. 아Q가 뱃삯 때문에 옥신 각신할 때 이 배에 타고 있던 긴 두루마기 똥보의 눈에 띄었다. 아Q는 자오씨 나루터에 있는 그의 금박공장(金箔廠)에 가서 운반공으로 품을 팔게 되었다. 아Q는 두어 달 착실히 일을 해 돈을 좀 손에 쥐게 되자 우 어머님이 있는 토곡 사로 가서 다음번에 올 때는 온 가족이 모두 자오씨나루터로 옮겨가 살자고 단단히 약속하고 돌아갔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아Q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우 어머님은 두 아들을 데리고 아Q를 찾아갔다. 우 어머님이 자오씨나루터로 가서 보니 아Q는 예전에 파총에게 붙잡혔을 때처럼 또 다시 일벌백계의 본보기가 되었고, 또 옛날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금원보(金元寶)¹⁷⁾를 훔친 죄로 경찰에 잡혀 다시 감방에 갇혀 있었다.

긴 두루마기 똥보는 그깟 종이돈 한 상자가 아까운 것이 아니었다. 절도 사건이 특하면 일어났지만 대부분 도둑이 잡히지 않았는데 이번에 잡힌 것이었고, 일벌백계하기 위해 경찰서 양반들에게 알려서 아Q를 감방에 처넣은 것이었다.¹⁸⁾

17) 林禮明, 78쪽; 아Q가 금원보를 훔친 것은 저승사자에게 뇌물로 주기 위해서였다. 아Q가 처형당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관에 넣어져 배에 실려 갈 때, 아Q는 지옥에 떨어졌다. 저승사자는 아Q의 명이 쉰다섯 살 쯤 되는데 왔다고 하며 아Q를 염라대왕 앞에 데려갔다. 이후에도 아Q는 꿈을 꿀 때마다 지옥에 갔다. 아Q는 염라대왕과 저승사자들을 사귀고 위기에 닥칠 때마다 도움을 받지만 지옥에도 탐욕, 뇌물수수, 비리가 많은 사실도 알게 된다. 본고에서는 아Q와 지옥과의 거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18) 長衫胖子本來夜不在乎那一箱子冥幣, 但因為偷盜時有發生, 又大都抓不到偷盜者, 這回抓到了, 爲了懲一儆百, 就跟警察所的哥們打了招呼, 阿Q就被押了。林禮明, 87쪽.

긴 두루마기 뚱보 사장은 아Q를 찾아온 우 어멈과 두 아들을 보았다. 이 사람이 큰아들 아W의 영특한 모습에 반하여, 아W를 양자로 받는 조건으로 아Q의 죄를 묻지 않는다는 계약서를 썼다.¹⁹⁾ 또 한 번 절도죄를 지어 위기에 처한 아Q가 이번에는 제 아들을 팔아 살 길을 찾았다.

바로 이때 아Q는 혁명의 물결에 휩쓸렸다.

몇 발의 총성이 울리더니 파란색 깃발을 쫓은 혁명군이 자오씨나루터를 점령했다.……혁명은 아Q가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좋은 일이다.……

“나는 투……혁명군에 투항하오.”

아Q는 이렇게 말하며 어깨를 좀 으쓱거렸다. 부스럼자국이 빛을 냈다. 게다가 두 손을 허리에 갖다 댔다. 지금이 바로 당시 웨이쑹에서 혁명했을 때 “내 손에 쇠 채찍으로 너를 치리, 철썩철썩……”²⁰⁾한 것처럼.

아Q는 이렇게 파란투구에 파란갑옷의 혁명군에 참가했다. 그가 끌려갈 때, 열 몇 명이 아Q와 함께 끌려갔다.²¹⁾

이번에도 아Q는 사회를 개혁한다든지 장기적인 억압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각성에서 혁명에 가담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살 길이 막연하던 참에 이들 군대를 만났으니 ‘혁명’이 다시 한 번 그의 운명을 뒤흔든 셈이었다.

(2) 감투를 쓰다

아Q가 투신한 파란투구에 파란갑옷의 혁명군에서, 아Q의 어리바리한 행동이 우직한 충성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다섯 명의 우두머리인 우 조장(吳伍頭)에게서 아노(阿鳥)라는 이름을 얻어 ‘명분이 바른’ 사람이 되었다. 또 생전 처음으로 팔자에 없는 다스터우(大土頭)라는 감투를 썼다.

19) 林禮明, 88쪽.

20) 魯迅, 『阿Q正傳』, 『魯迅小說全集』, 武漢, 長江文藝出版社, 2005, 97쪽.

21) 隨着幾聲槍響, 一支樹着藍色旗幟的革命軍占領了趙家渡口, ……革命, 是阿Q慾尋而不得的好事情。……“我投……投降革命軍。”阿Q這麼說, 聳了一下肩, 癩瘡疤閃着光, 居然雙手叉起腰來, 彷彿現在就是當年未莊的革命了, “我手執鋼鞭將你打, 鏘鏘……”阿Q就這養參加了藍盔甲革命。他被帶走, 有大十幾號人與阿Q一起被帶走。林禮明, 88-89쪽.

아Q가 들어간 군대는 정규 혁명군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 그와 승패를 겨룬 노란투구에 노란갑옷 군대(黃盔甲軍)와 주황군대(橙軍), 검은군대(黑軍), 푸른군대(靑軍), 심지어 가장 강력한 감군(監軍)도 알고 보면 금쇠고개(金鐵嶺), 소말봉(牛馬峰), 소말동굴(牛馬洞), 소산골(牧山村), 링허남쪽기슭(陵河南岸), 웨이쑹 등지에서 약간의 땅을 근거지 삼아 날뛰는 토비(土匪) 성격이 강했다. 별 볼일 없는 아Q가 Q장 두목에 등극해 '잘 살게' 된 것이 이들 군대가 '혁명'보다 또 다른 일에 더 열중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3) 이상을 실현하다

『아Q정전』에서 애초에 혁명에 대한 아Q의 이상은 ① 탐나는 것은 모두 갖고, ② 마음에 드는 계집도 모두 내 것이었다.²²⁾ 아Q의 혁명 생애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얻는 과정이었다. 그는 ①에서 저 자신의 역사를 설욕하고 개선가 "내 손에 쇠 채찍으로 너를 치리"를 부른다. ②에서 의처증 때문에 우 어머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면서 한편으로 자신은 탐나는 여자를 갖는다.

① 탐나는 것은 모두 갖기

아Q는 전에 당한 것을 그대로 (남에게) 갚아 복수하고 응징하며 아무리 충성스런 줄개일지라도 후환이 될 것이라면 가차 없이 처형한다. 아Q의 정신승리법 장부에 들어있는 레퍼토리가 차례대로 공연될 때, 아Q는 처형을 명하는 '살인기계'가 된다.

첫째, '단죄해야 할 때 단죄하지 않고 후환을 남겨두면 더 감당하기 어려워진다(當斷不斷, 禍患難當。)'²³⁾

금쇠고개 파란군대의 이전 두목 루쭈링(陸卒領)을 제거하고 새로 패주가 된 자는 우원(吳汶)이다. 이 사람은 아Q가 처음 혁명에 투신했을 때 처음으로 벼슬을 준 우 조장이다. 아Q가 승자가 되고 우 조장이 패주가 되었을 때, 구주

22) 魯迅, 「阿Q正傳」『魯迅小說全集』, 武漢, 長江文藝出版社, 2005, 96쪽.

23) 林禮明, 153-157쪽.

선생의 의견을 수락해 아Q는 눈물을 흘리며 ‘즉결처형’을 명했다.

둘째, ‘내부를 안정시킨 뒤에 외부의 적을 친다는 선현의 치세의 철칙이다 (揚外必先安內, 實屬先賢治世法寶。).’²⁴⁾

아Q가 산채에서 정풍(整風)할 때, 간계(미인계)로 루쭈링의 두 딸 다슈(大秀)와 얼슈(二秀)를 이용한 뒤에 살해하고, 뒤에 그녀들을 살해한 사병도 오물통에 빠져 죽는다. 그를 오물통에 밀어 넣은 자는 바로 그의 뒤를 몰래 밝은 구주 본인이다.

셋째, 웨이쑹으로 금의환향하다.

『아Q정전』에서 아Q는 웨이쑹 사람이 아니었지만, 아Q에게 웨이쑹은 굴욕과 항쟁, 고통과 기쁨, 희망과 실망, 몰락과 중흥, 복수와 미련, 사랑과 실연, 혁명과 혁명 금지의 장소이다.²⁵⁾ 아Q가 진정 승리의 축배를 마시려면 웨이쑹으로 진군하지 않을 수 없다. 아Q가 웨이쑹을 점령하자 기득권 세력인 자오나리(趙太爺), 첸 나리(錢太爺), 쑨 나리(孫太爺), 리 나리(李太爺) 등이 액운을 면할 수 없었고, 아Q에 대한 웨이쑹 사람의 태도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

아Q를 당시에 붙잡아 죽인 것은 혁명이든 노략질한 자이기 때문이든 관에 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 만약 당연한 거였다면 그가 살아날 리 있겠어? 어마어마한 사람이 돼서 웨이쑹에 되돌아올 리 있겠어?²⁶⁾

아Q는 웨이쑹에 혁명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을 타지 못해 ‘금지’당했고 총살당했다. 그때 혁명이 그 나물에 그 밥이었다면, 아Q는 묵은 빗을 청산해야 한다. 아Q의 설욕과 명예회복은 자신을 고발해 억울하게 총살대로 몬 주모자를 밝혀 양갓음하는 데 달려있었다.

아Q군이 시내로 본거지를 옮긴 다음에 아Q가 착수한 일은 첫 번째, 자오메

24) 林禮明, 162-165쪽.

25) 對阿Q來說, 未莊牽掛着他許多往事——屈辱和抗爭、痛苦和喜悅、喜冀和失望、沒落和中興、仇恨和眷戀、“愛情”和“失戀”、革命和不準革命……。林禮明, 183쪽.

26) 大體是說, 阿Q當年的被抓被殺, 無論是因爲革命還是因爲搶劫者是不應該的。如果應該, 他就不會活過來, 也不會成爲大閹人重返未莊。林禮明, 187쪽.

이쁘(趙妹子)와의 혼인이고, 두 번째, 자신이 덮어쓴 노략질범이라는 죄명을 벗어 명예를 되찾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총살시킨 '자오씨네 약탈 사건(趙家搶劫案)'을 철저히 조사해 첫 번째로 나 아Q의 밝혀지지 않은 억울함을 씻고, 두 번째로 나 아Q의 위풍을 드러내 직접 나서 진범을 총살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비밀리에 파견한 수하들에게서 밀고자는 자오 나리와 그의 아들 자오 수재(趙秀才)라는 보고만 들어왔다. 아Q는 자오 수재의 딸 자오메이쯔를 얻고 싶은 욕심에, 그 일의 진상을 아는 사람을 남김없이, 줄줄이 모조리 소리 소문 없이 처치했다. 결국 '자오씨네 약탈사건'의 원시적인 관련 서류는 죄다 훼손되고, 자오 나리 부자의 비열한 죄행도 묻혀버렸다.²⁷⁾

넷째, '승자는 왕이 되고 패자는 적이 되는 것이 불변의 진리이다(勝者爲王 敗子爲寇, 這是天經地義的。)'²⁸⁾

『아Q정전』에서 아Q는 가짜양놈의 단장(아Q의 말로 상제 지팡이)에 두드러 맞았고, 혁명을 금지 당했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 법이라더니, 아Q가 웨이좡에서 금쇠고개로 되돌아온 뒤에 가짜양놈이 감군(監軍) 총본부에서 파견한 아Q군 감독관 '감군'으로 아Q를 조사하러 왔다. 아Q와 구주 선생은 가짜양놈 첩 감군(錢監軍)에게 자오씨나루터, 검은바윗골, 허씨동네를 협공하자고 제의했다. 강제로 벌인 전투에서 실패한 뒤, 아Q와 구주 선생은 가짜양놈을 감금하고 상부로 병역과 무기를 요청하는 편지를 쓰게 했다.

구주가 물었다. “무슨 요구는 없소?”

가짜양놈이 전혀 숨기지 않고 말했다. “해외로 나가 야바디파에 은거하고 싶소. 그렇지 않으면 처형하시오.”

……가짜양놈이 작은 뗏목을 타고 동쪽으로 흘러가 해외로 나갈 준비를 할 때, 별안간 병사했다. 죽기 전에 아주 고통스러워 십 몇 차례 비명을 질렀다. 그는 두 손으로 단장을 꼭 움켜쥐고 죽었다.²⁹⁾

27) 一可洗刷我阿Q的不自之冤, 二可顯示我阿Q的威風, 親自槍斃罪犯。……“趙家遭劫案”的原始檔案被毀掉了, 趙太爺父子的卑劣行爲被掩蓋了。林禮明, 274-275쪽.

28) 林禮明, 219쪽.

29) 林禮明, 220쪽.

구주 선생은 감군 총본부에 링허남쪽기습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다는 보고를 했다. 아울러 첸 감군이 소산골 격전지에서 전사한 소식도 알렸다. 감군 총본부는 아Q를 정식으로 금쇠고개 우두머리에 위임했다.

다섯째, 과총의 범정을 재현하다.

아Q가 산채에서 〈달빛의 노래(月亮歌)〉를 관람할 때, 굶주린 이리가 뛰어 들어 아S를 물어갔다. 이에 아Q는 총을 쏠 것을 두 번 명령했고, 아순(阿順)과 동시에 총을 쏘았다. 아S를 구했지만, 아S는 다리에 불치의 증상을 입었다. 아순의 총알은 이리를 맞추고 아Q의 총알이 아들 아S를 맞춘 것이었다. 그러나 아Q의 총알이 눈이 먼 사실을 만천하에 알릴 수는 없다.

[표] 혁명 재판의 재현

막의 순서	아Q정전 ³⁰⁾	아Q후전
따귀 때리기	자오 나라가 달려들어 따귀를 한 대 때렸다	아Q가 두 걸음 앞으로 다가가서 세계 따귀를 한 대 때렸다
무릎 꿇기 금지	“노예근성!” 긴 두루마기를 입은 인물이 경멸하듯 말했으나 서라고는 하지 않았다.	“노예근성!” 구주가 옆에서 크게 소리쳤지만 그는 그(처형될 자)를 서라고는 하지 않았다.
허위자백 강요	사실대로 불어라, 경치지 않게. 내다 알고 있으니까. 불면 널 석방시켜 줄 테니!	사실대로 말해.……일이 다 밝혀졌어. 불면 아무 일도 없어.
최후 진술	“무슨 할 말은 없는가?” “없습니다.”	1회 아순: “저는 본래 총을 쏘서……이리……” 2회 긴 두루마기 똥보: “없소.” 3회 왕 둘째(王二) ³¹⁾
동그라미 그리기	종이 한 장과 붓 한 자루를 가지고 와 손에 쥐어주었다.……한 군테를 가리키며 그에게 서명하라 했다. “저는……저는……글 쓸 줄 모르는 뎁쇼.” “그러,……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라!”	쓰밍(四銘)이 종이 한 장과 붓 한 자루를 가지고 와 손에 쥐어주었다. “저는……저는……글 쓸 줄 모르는 뎁쇼.” “그러,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라.” …… “그러, 그리면 아무 일 없다.” 구주가 여전히 차갑게 말했다.

「아Q정전」에서 혁명 법정(革命法庭)의 재판 첫 공연이 Q창 산채(Q莊府)에서 아순을 피고인으로 재공연의 첫 회 막을 올렸다. 아Q 법정은 아Q가 자기 성이 자오라고 말했다가 자오 나리에게 불려가 따귀를 얻어맞은 기억의 재현에서부터 마지막 동그라미를 그릴 때로 착착 순서대로 진행된다. 다만 ‘조리돌림’이 생략된 이유는 아Q의 죄행을 숨겨야 했던 데 있을 것이다.

아Q군이 자오씨나루터를 점령했을 때 금박공장의 사장 긴 두루마기 똥보는 미리 가족을 데리고 도피해 피해를 입지 않았다. 그런데 자오씨나루터를 점령한 두목이 아Q라는 소문을 듣고 복과 징을 치며 떠들썩하게 되돌아왔다. 그는 사업을 하는 사람인지라 아Q에게 큰아들 아W, 즉 형다(亨達)를 잘 키워 서양의 유명한 법률대학에 입학시킨 공을 틀림없이 인정받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는 아Q가 단발에 양복에 양신발에 무늬 있는 넥타이를 맨 모습에 깊은 원한을 갖고 있는 점을 몰랐다. 아Q는 아W의 사진을 보자마자 ‘새 가짜 양놈’이 생겼다며 긴 두루마기 똥보를 체포해 아Q 법정에 세웠다.

② 마음에 드는 계집도 모두 내 것

아Q 시절에는 패배로 끝났을지라도 Q창 두목이 된 아Q로서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우 어멈에 대한 의심과 옛날 버릇이 도져서 또 다른 젊은 비구니와 풍파를 일으켜 개경사에서 파문당한 것은 아Q의 새 ‘연애사’의 전주였다. 모두 의심, 덮어씌우기, 억지 쓰기, 책임 회피, 새로운 연애에 대한 갈망, 복수, 응징이 복합적으로 뒤엉킨 것이다.

주황군대, 검은군대, 푸른군대가 점령한 지역을 거쳐 우 어멈과 두 아들을

30) 魯迅, 「阿Q正傳」, 武漢, 長江文藝出版社, 2005, 105-107쪽; 林禮明, 222-227, 239-246, 275-278쪽.

31) 소산골에 아Q군이 주둔할 때 왕 들제가 (그의 아버지가 큰 사업을 해서 자신이 도와 주어야 한다며) 아Q에게 뇌물 5만 위안을 주었고, 아Q는 그를 군무집행이라는 형식으로 보내준 일이 있었다. 왕 들제는 돈을 아Q에게 준 것이 아니라 우 어멈에게 갖다 주는 조건으로 나갔다. 이 왕 들제가 아Q가 산채 두목이 된 것을 알고 찾아와 뇌물수수한 일을 끄집어내려 하니 처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林禮明, 115-117쪽.

Q왕 산채로 데려온 자오 첫째(趙一)를 처치해 버린 이유도 자오 첫째와 우 어머님이 부부로 위장해 사선을 넘어올 때, 여인숙 한 방에서 묵었고, ‘남녀가 한 방에서 밤을 보내면서 아무 일이 없었던 말이나?’ 하는 데 있었다.

그렇지만 일이 정말 묘하게 돌아갔다. 이튿날 자오 첫째가 죽었다. 구주는 아Q에게 부고장 초고를 써주었다. 아Q에게 부인과 아S를 데려다준 공신장관 자오 첫째가 병사했다는 말이었다. 추도회를 열 때 아Q와 구주는 모두 자오 첫째를 한바탕 추켜세우는 연설을 했다.³²⁾

아Q군의 총본부가 시내로 이동한 다음에 아Q의 연애는 새로운 역사를 썼다. 웨이쑹에 금의환향 했을 때 아Q는 이미 자오 나리의 손녀 자오메이쯔의 10대의 풋풋한 미모에 반했다. 아Q는 그녀를 아내로 삼는 대신 과거(자신의 억울한 총살사건)의 원한을 따지지 않고 자오 나리 일가를 보존시켜 준다. 그녀는 자신과 아Q와의 은원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³³⁾ 여기에 또 구주 선생과 허 선생이 증매쟁이가 되어 두 사람에게 부부의 연을 맺게 해주었다.

(4) 관 속에 세 차례 들어가다

아Q는 ‘한 개’의 관에 ‘세 번’ 들어갔다. 처음 관에 들어간 것은 우 어머님이 총알 맞은 아Q를 관에 넣어 시내를 탈출할 때였고, 그 다음에는 전략적 고려에서 주변에 자신이 죽었다고 소문을 내고 실패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다. 또 그 다음에는 한밤의 침입자 두 사람에게 의해 관에 넣어졌다.

32) 不過，事情真有了蹊蹺。第二天，趙一就死了。古久爲阿Q草擬了一份訃告。說爲阿Q接回了夫人和阿S的功臣長官趙一病死了。開追悼會時，阿Q和古久都講話，把趙一讚揚了一番。林禮明，180-181쪽.

33) 至於趙妹子，伊也許不太知道爺爺和丈夫之間的歷史齟齬。伊很滿足。林禮明，273쪽.

[표] 아Q가 관에 들어간 경험

	연도	장소	주모자	성격	특징
1	1911 서른 미만	시내 사형장	우 어멈과 허 선생	피동적	죽음을 삶으로
2	(40대)	Q장 산채	아Q와 구주 선생	자발적	패배를 승리로
3	50대	자오씨나루터 아Q사적관	침입자 광인과 아S	피동적	살인을 사면으로

아Q가 ‘관’과 인연을 맺은 과정은 위의 [표]와 같다. 관이란 사람이 죽으면 그의 가족들이 마련해주는 것이다. 관 한 개의 소유주가 우 어멈(처형당한 아Q의 가족)→뱃사공 궁씨(강물에서 인양)→젊은 과부(의붓아들이 선사)³⁴→아Q 사적관건립부(守迹部)로 바뀌면서, 아Q는 첫 번째와 세 번째에 피동적으로 관에 넣어졌고, 두 번째는 사전의 치밀한 계획에 따라, 또 어떤 사자(死者)의 장례를 위장해 그 시신과 함께 들어갔다.

어떤 사자는 자오씨나루터 Q장 산채 근처에 사는 젊은 과부이다. 그녀의 내력을 보면, 열여덟 살에 예순 몇 살의 뱃사공 궁씨의 아버지의 후처가 됐다. →(관을 얻은 뒤) 뱃사공 궁씨 아버지가 사망했다. →(과부가 된 뒤) 아Q군의 ‘어떤 사내’를 밤마다 끌어들었다. →(‘어떤 사내’가 실종된 뒤) Q장 산채에서 아Q에게 손목을 잡히고 품속에 안겼다.³⁵ →(아Q와 풍파 뒤) 급사했다.³⁶ →시

34) 루쉰의 작품에서, 궁씨는 단씨 넷째 아주머니와 벽 하나를 사이에 둔 옆집의 딸기코 술꾼이다. 魯迅, 「明天」, 『魯迅小說全集』, 武漢, 長江文藝出版社, 2005, 36-42쪽; 궁씨네는 대대로 조선업을 해 돈을 벌었다. 작년에 궁씨의 어머니가 사망하자 그의 예순을 넘긴 아버지가 열여덟 살 소녀를 마누라로 들였다. 궁씨의 이 작은 엄마는 궁씨보다 서른 몇 살이 어렸다.(궁씨는 권 줄에 들었다.) 궁씨는 관을 작은 엄마에게 주었다. 관을 미리 장만하면 장수한다는 풍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林禮明, 57-58쪽.

35) 이 아Q 연애사 한 대목의 전모는 이러하다. Q장 산채에서 우 어멈과 젊은 과부가 함께 있는 방에 아Q가 들어왔고, 우 어멈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아Q가 다짜고짜 이 과부의 손목을 잡고 덥석 끌어안았다. 우 어멈이 들어와 이상한 공기를 느끼고 그 젊은 과부가 간 다음에 아Q에게 무슨 일냐고 물었다가 처음으로 따귀 한 대를 맞았다.

36) 그녀는 구주 선생이 사주한 사람이 보낸 비상을 먹고 죽은 것이다. 林禮明, 258쪽.

신이 (아Q와 함께) 관에 넣어졌다.→뱃사공 궁씨는 장례를 요란스레 치른다.

아Q가 지천명(地天命)의 나이를 넘긴 뒤 어느 해에 자오씨나루터에 있는 자신의 사적관(守迹館)으로 시찰을 나갔다. 이 아Q 사적관은 뱃사공 궁씨 집 마당에 세운 것이고, 아Q는 이 사적관의 이전에 자신이 사용하던 방에 묵었다. 이 방은 바로 젊은 과부와 풍파를 일으킨 문제의 방이다.

한밤중에 여기 아Q의 침실로 잠입한 자들이 있었다. 두 사람인데, 하나는 자칭 ‘상소’를 올린 광인이라 했고, 다른 하나는 아예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았다. 얼굴을 시커멓게 칠하고 두 눈통이와 입가를 하얗게 칠한 자였다. 이들이 마취제를 뿌려서 동침한 여자가 정신을 잃었지만 아Q는 정신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다. 두 침입자가 아Q의 목에 밧줄을 걸고 조이며 몸뚱이를 오랏줄로 꿰뚫어 묵었다. 이에 저항 능력을 잃은 아Q는 침입자가 명령하는 대로 ‘처형 3회’에 쓴 방법을 그대로 재현해 동그라미를 세 개나 그렸다.

“총알로 그의 목숨을 끝낼 필요 없어. 그에게나 편하지!”³⁷⁾

아Q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중에 이러한 말을 한 얼굴에 검은 칠을 한 자가 아들 아S임을 알아보았다.³⁸⁾ 『광인일기』에서 광인은 식인 역사를 밝히는 사람이지만 살인자가 아니다. 이들도 애초부터 아Q를 살해할 뜻은 없었던 것 같이 오랏줄에 꿰뚫어 묵은 아Q를 그 문제의 관에 넣어 가두고 달아났다. 광인과 아S가 어떤 인연을 맺어 함께 한밤에 발가벗은 아Q의 침실로 뛰어 들게 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허 선생과 구주 선생이 모두 이리골 출신이라는 점, 혁명한답시고 동가숙서가식(東家宿西家食) 해온 점, 혁명은 그들에게

37) 沒有用子彈結束他的命，算便宜他！林禮明，330쪽.

38) 林禮明，322-340쪽; 아Q는 자오메이쯔와 혼인한 뒤로 우 어멈과 아S를 돌보지 않았다. 관에 갇힐 때, 아Q는 아S가 무슨 원한을 품고 자신을 죽이려 하는지 영문을 몰랐다. 생각해 보니 진실을 아는 유일한 생존자가 우 어멈이고, 그녀가 폭로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제 속물근성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아Q는 아S에게 양심의 가책을 갖고, 처형당한 사람들에게도 죄의식을 가져야함에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느끼지 못한 것이다.

모두 제 배 불리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점, 아Q는 예나 지금이나 꼭두각시라는 점을 간파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구주 선생과 수하들에게 구출되어 관에서 꺼내진 아Q는 구주 선생이 대령하는 팽조팔백수신약을 먹고 건강을 회복한다. 구주 선생이 침입자 추격 상황을 보고하자, 아Q는 “추격하지 마라”하고 말한다. 또 이전에 태사부(太史部)에서 퇴출돼 연명으로 ‘상소’를 올려 감방에 갇혀 처형을 기다리고 있는 지식인들을 “사면해주라”고 지시한다.

아Q가 ‘관’에 들어가는 행위는 ‘죽음에서 삶으로’ 전환을 상징한다. 첫 번째는 우 어멈과 허 선생이 공모한 관에서, 두 번째는 부패한 시신과 함께 들어간 관에서, 세 번째는 사적관의 관에서 나오면서 새 삶이 시작되었다. 마지막 사건이 아Q를 어느 정도 반성시키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한 것 같다.

2) 피로 맹세한 총성

소말동굴 안에 보물이 많을 것이란 소문을 들은 아Q는 무작정 토벌에 나섰다. 소말동굴에 근거지를 두고 있던 노란투구에 노란갑옷 혁명군은 어리바리한 아Q군의 동정을 미리 알아챘다. (구주 선생이 놓은) 함정에 빠진 아Q가 항복하기 위해 하얀 천을 들 찰나에 전세를 뒤바꾼 영웅은 창경이다.

창경은 원래 이름이 창경량(長庚亮)인데, 아Q의 눈흘겨보기 주의와 피휘(避諱)의 위협을 받아 ‘亮’자를 버렸다. 아Q는 동굴 안을 정찰해보라며, 창경에게 횃불을 들고 들어가게 했다. 이는 창경을 사지에 몰아넣은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창경이 적의 후미를 공격할 수 있었고, 이때 창경은 적의 우두머리를 저격했다.³⁹⁾ 이 한 발의 총성이 울리면서 아Q는 패배를 승리로 바꾸고 아Q의 혁명 생애에 파란불을 켤 수 있었다.

승전과 더불어 훨씬 중요하고 커다란 소득은 ‘구주’라는 천재적이고 교활하

39) 林禮明, 106, 122-123쪽; 창경은 토비의 약탈로 집안이 풍지박살 났고 형이 토비에게 살해당해 토비에 대해 맺속 깊은 원한을 품고 아Q와 거의 동시에 혁명에 투신했다.

고 충성스런 책사를 얻은 일이다. 아Q가 잡은 포로 19명 가운데 ‘구주’라는 인물이 있었다. 이 구주는 『광인일기』의 그 구주 선생이다. 그는 하얀 수염을 기른 노인으로 깡말랐지만 아주 튼튼하고 건강해 보였고, 자칭 노란투구에 노란갑옷 군대의 연락장교라고 말했다.⁴⁰⁾

구주는 이리골 사람이다. 사서오경, 제자백가, 역대 역사서를 두루 읽었고, 청나라 왕조를 뒤엎은 그 해에 하얀투구에 하얀갑옷 혁명군에 투신했다. 실패 뒤에 또 다른 노선의 의군(義軍)에 투신했다가 얼치락뒤치락 하는 우여곡절을 겪은 다음에 다시 노란투구에 노란갑옷 군대에 가서 한 자리를 맡게 되었다. 소말동굴의 격전에서 그는 아Q의 수하에 의해 또 패장이 되었다. 구주는 아침을 잘 하고 임기응변이 뛰어나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총애를 받고 감투를 쓰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⁴¹⁾

『아Q정전』에서 자오 나리는 아Q에게 ‘자오’ 성(姓)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구주 선생은 ‘Q장 어른(Q莊家)’이라 부르며 아Q의 주구가 되기를 자처했다.

“Q장 어른, 저 구주가 어른을 도와 대업을 이룰 것입니다.”
 구주는 말을 하다가 아Q가 의심하는 것을 보더니……난데없이 식지를 물어뜯었다. 피가 주르르 흘러내렸다. 피 묻은 손가락으로 자기 옷의 하얀 안감에 크게 붉은 글자를 썼다.
 “Q장 어른, 이것이 무슨 글자입니까?” 구주가 물었다.
 “忠.”
 “저는 어른께 충성할 것입니다. 저를 믿으십니까?”
 “믿어!”
 “그러면 어른께서도 저처럼 피 묻은 손가락으로 옷 안감에 ‘信’자를 써주시지요.”

40) 有一名俘虜叫古久，是蓄着白胡須的老頭，精神比誰都癩癩，自稱是黃軍的聯絡官。林禮明，125쪽.

41) 古久，狼子村人，熟讀四書五經諸子百家歷史書，推翻清王朝那年，他投奔白盔甲革命，失敗後，又投奔另一路義軍，七折騰八拐彎，又到黃盔甲軍任職。牛馬洞一場激戰，他又成爲阿Q的手下敗將。古久擅逢迎，能機變，故每到一處都頗爲得寵，能謀一官，能司一職。林禮明，129쪽.

.....

아Q는 식지를 물어뜯어 제 더러운 속옷 위에 피가 흐르는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그렸다.....구주가 “좋습니다”하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아Q가 분발하여 마무리하려 할 때, 기운이 떨어져 그만 손가락이 바깥쪽으로 빠져서 그 동그라미는 ‘Q’자가 되었다. 바로 그의 이름이었다.

“훌륭하십니다, 훌륭해요, Q왕 어른의 함자라, Q왕 어른께서 몸으로 ‘믿음’을 저당 잡힌 것이라 더 훌륭합니다. ‘Q’가 ‘信’자보다 훌륭합니다!”⁴²⁾

구주 선생과 아Q 두 사람은 제 손가락을 물어뜯어 낸 피로 ‘患’자와 ‘Q’자를 써서 충성을 다하고 믿을 것을 굳게 약속했다. 아Q의 혁명 생애에서 백전 백승 승승장구의 역사는 모두 구주 선생의 병법과 지략이 없었다면 불가능했고, 아Q의 시체는 진즉 이리골로 보내져 누군가의 뱃속에 들어갔을 것이다. 구주 선생의 술수는 모두 그의 ‘낡은 장부’에서 나왔을 것이다.⁴³⁾ 『광인일기』에는 그 장부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구주 선생이 읽은 책이 많으니 분명히 그 책 속에서 나왔을 것이고, 또 그의 치부와 관련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가 들어있을 것임이 분명하다. 그것을 위해 실전에서 삼갈 계명 세 가지도 들어있을 것이다.

42) 林禮明, 139-140쪽; 『아Q정전』의 아Q는 붓대를 처음 잡아본지라 동그라미가 수박씨 모양으로 된 경험이 있고, 이것도 아Q의 굴욕사의 한 장을 장식한 것이다.

43) 구주 선생의 낡은 장부에 대해 동독작가 크리스토프 하인이 쓴 극본 『아Q정전』에서 보면 이렇다.(밑줄은 필자) “왕(틸보라 불린다): 삶의 지혜지. 열네 살 때 난 삶의 지혜들을 적어 둔 장부를 한 권 갖고 있었지. 그것은 붉은색과 초록색 줄이 그려진 가늘고 긴 모양의 공책이었어. 잔고, 차변과 대변, 부채와 신용대부 등이 적혀 있는. 아Q: (거들 듯이) 수입과 지출.왕: 굉장한 구호들이었지. 삶과 명예와 의무에 대한 생각들이었어. 깊이 생각한 것들, 쓸모없는 상투어들이지. 아Q: 그림들도 있었어? 왕: 정신이 있었지. 매일 아침 난 내 장부를 펼쳐 놓았지. 그것을 읽을 때면 난 강하고 자유롭고 결코 꺾이지 않을 거라고 느꼈어. 세상은 열려 있었고 삶은 내 앞에 놓여 있었지. 난 젊었고 명성과 부와 여자를 꿈꾸었지.” 크리스토프 하인, 노영돈 옮김, 『아Q정전(Die wahre Geschichte des Ah Q)』,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6, 31-32쪽.

소산골에서 떠나없이 '삼갈 계명 세 가지'를 정하고 모두 지키게 했다.
첫째는 금욕, 둘째는 탐욕 금지, 셋째는 멋대로 날뛰기 금지이다.⁴⁴⁾

『광인일기』에서 광인은 개 짖는 소리에서 '사자 같이 흉악한 마음, 토끼의 겁, 여우의 교활……'⁴⁵⁾을 떠올렸다. 이는 이 구주 선생과 같은 자들을 두고 한 말일 것이다. 이 구주 선생이 아Q에게 해준 일은, 첫째, 승리는 아Q의 몫으로 돌린다. 둘째, 패배를 승리로 바꾼다. 패배를 남에게 떠넘겨 죄를 물어 처리하는 방법은 아Q의 정신승리법에서 배운 것이니 실패란 없고 또 아Q의 충성을 얻는데 즉효하다. 셋째, 후환을 남기지 않는다. Q짱 어른이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될 요소는 모조리 제거한다. 때로 구주 선생이 직접 나서 처리할 때도 있다. 넷째, Q짱 어른에게 팽조팔백수신약을 계속 먹인다. 물론 구주 선생 자신은 더 먹을 것이다. 다섯째, 루쉰의 작품 속에서 글거나 쓰고 말거나 하는 유식지사들을 그러모아 Q짱 어른 사적관을 건립하고 공적비를 세운다.

『아Q정전』에서 아Q가 어리석어 제 목숨이 어떻게 되는지 몰랐다고 해도, 그 동안 20년 넘게 싸움터를 누벼온 노장이 되었고, 20년 넘는 세월 동안에 구주 선생과 허 선생 같이 탁월한 모사꾼을 곁에 두고 있었다. 서당개도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 데 아Q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다. 게다가 아Q에게 아무리 해결사 노릇을 잘 해주어도 이 아Q라는 위인이 본래 사리에 어둡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아닌지라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 어디로 불똥이 튈지 모른다. 의처증이 우 어멈을 정신분열에 시달리게 한 것이 뒤엎을 수 없는 증거이다. 아니나 다를까. 아Q도 속에서 수하의 충성심에 대한 의심이 모락모락 피어오를 때였다.

최근에 아Q의 의심병이 다양하고 병발적인 양상으로 도졌다. 남녀관계에 대한 한 가지 의심에서 그의 오른팔 왼팔인 구주 선생과 허 선생에 대한 의심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의심은 사적관건립부와 태사부의 업무가

44) 在拈山村你我曾訂有‘三戒’共勉：一戒色，二戒貪，三戒任性。林禮明，159쪽.

45) 魯迅，「狂人日記」，《魯迅小說全集》，武漢，長江文藝出版社，2005，14쪽.

진척을 보이고 아Q가 겪은 경력과 걸어온 길이 신성화 되고 아Q의 자리가 날로 확고해짐에 따라 동시에 생긴 것이다.⁴⁶⁾

.....

왕 털보, 자오 수재, 쉰 가짜양놈, 아순, 긴 두루마기 똥보, 왕 둘째 등은 모두 죽었다. 가장 귀하고 빛나는 명성을 날릴 수 있는 사람이 모두 죽었다. 그럼 누가 남았지? 아Q는 갑자기 그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즉 구주 선생과 허 선생이 떠올랐다. 그렇다! 자신의 오늘은 그들에게 기대 얻은 것이다. 그들이 나 아Q를 가장 잘 이해한다.⁴⁷⁾

구주 선생은 아Q의 의심 앞에서 진심에서 우러난 충성을 증명하기 위해, 살아남으려는 자의 처절한 몸부림이자 아부의 극치를, 그리고 다시 한 번 정말로 개가 되는 굴욕을 참아냈다.⁴⁸⁾ 아Q에게 당한 화풀이는 구주 선생 자신의 수하 가오얼추(高爾礎)에게 풀고, 가오얼추는 자신의 수하 쓰밍에게 풀고, 쓰밍은 자신의 수하 젊은 유생(儒生)에게 푼다.

그러나 천하의 구주 선생도 한 가지 못한 일이 있으니 그것은 우 어멈에게 손을 대지 못한 일이다. 구주 선생은 아Q에게 후한을 없애기 위해 그녀도 죽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⁴⁹⁾ 아Q가 쓴 총알이 친아들 아S의 다리에 박혔다는 것을 알고, 또 아순 등 진실을 아는 자를 모조리 처형한 사실을 아는 유일

46) 近來, 阿Q的懷疑狂有了多樣性和並發性的發展, 從對男女關係的單一懷疑派生了對他的左右手古久先生和何先生的懷疑, 這種懷疑是跟守述部和太史部的工作取得進展, 阿Q所經歷的事情、所走過的路被神聖化, 阿Q的位置日益穩固的同時產生的。林禮明, 306쪽.

47) 王胡、趙秀才、錢假洋鬼子、阿順、長衫胖子、王二……他們都死了, 最有可能奪走尊貴顯赫的人都死了。還剩下誰呢? 阿Q突然想到靠他最近的人即古久和何先生。是的, 自己的今天是靠他們得來的, 他們最了解我阿Q。林禮明, 306쪽; 앞의 두 사람 가운데 왕 털보는 자오 나리 덕에 배를 저어주다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죽었고, 자오 수재는 그때 웨이징에서 혁명당에 가담해 다른 도시로 갔다가 전사해 혁명당에서 위로금을 받았다. 나머지 사람은 모두 아Q에게 처형당했다.

48) 이때 구주 선생은 '타면자건(唾面自乾)'의 가르침을 실행했다. 중국 측천무후(則天武后) 시대에 누사덕(婁師德)이란 사람이 아우가 대주자사(代州刺史)로 가게 되었을 때, "만약 어떤 사람이 침을 뱉는다면……침 같은 것은 닦지 않아도 그냥 두면 자연 마르게 된다"고 일깨워준 일이다. 왕경국, 『유식의 즐거움』, 휘닉스, 2006, 73쪽.

49) 林禮明, 232-233쪽.

한 생존자이니 자신이라도 나서서 손을 써야 마땅했다. 그러나 우 어머님은 Q
 좇 두목의 정실부인이요, 아S의 친어머니이다. (비록 약의 원료 하나가 들어
 들어 아쉽기는 했겠지만) 우 어머님이 정신분열증이 있으므로 자신이 수고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구주 선생이 모르는 한 가지 사실이 또 있는데 우 어
 머님은 자신의 동업자 허 선생의 아들 아W를 낳은 사람인 점이다.

4. 팽조팔백수신약과 아Q 사적관

1) 팽조팔백수신약

(1) 아Q의 또 다른 적

루쉰의 『복을 비는 제사(祝福)』에서 상린 아주머니(祥林嫂)의 아들이 이리
 에게 잡아먹혔다.⁵⁰⁾ 이리에게 상린 아주머니만 원한을 가진 것이 아니다.

[표] 이리에 대한 아Q의 원한

작품	연도	장소	상황	결과
아Q정 전	1907	웨이창 인근 산기슭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영원히 기억에 남았다.…… <u>홀 약하고 무서웠다. 번쩍번쩍 도 깨비불처럼 빛나는 두 눈은 멀 리서 그의 몸뚱이를 꿰뚫을 것 같았다.</u>	손에 도끼 한 자 루를 들고 있었 으므로 담이 커 져 간신히 웨이 창에 왔다
아Q후 전	1911	검은바윗골 길가 작은 절 (문설주 없다)	말곰(馬熊)이라 불리는 굶주린 이리…… <u>사람을 잡아먹으려고 노려보는 번뜩이는 눈, 이리의 눈이자 사람의 눈이다.</u> 감히 더 쳐다볼 수 없었 다.…… “눈, 눈! 너무 끔찍해!” 너무 밋고 너무 무서운 눈이 다. <u>짐승의 눈, 사람 떼거리의</u>	아Q와 우 어머 두 사람이 모두 상처를 입었다 불을 피우자 이 리떼가 멀리 떨 어져 불이 꺼지 기를 기다리다

50) 魯迅, 『祝福』, 『魯迅小說全集』, 武漢, 長江文藝出版社, 2005, 159쪽.

			눈, 세속의 눈, 사람을 잡아먹는 눈이다!	날이 밝자 돌아갔다
1915?	금쇠고개	굶주린 이리가 뛰어들어 어린 아S를 철조망 밖 20여 미터 떨어진 곳까지 몰고 갔다.		아S는 두 팔을 물렸다(왼쪽다리 중상)

이리에게 잡아먹힐 뻔했던 기억과 그때의 공포는 아Q의 머릿속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었다.⁵¹⁾ 아들 아S도 산채에 뛰어든 굶주린 이리에게 물려가 죽을 뻔했다. 이리, 특히 이리의 눈에 대해, 더 나아가 이리의 눈을 닮은 사람의 눈에 대해 아Q는 잊을 수 없는 두려움, 기억과 원한을 갖고 있다.

[표] 아Q의 기억의 상자 속에 가둬둔 '과거'⁵²⁾

장소	상황		끔찍한 눈	결과
자오 나리 덕	자오 나리	따귀 때릴 때	노려보는 눈	잡아먹힘
	자오 수재	커다란 대나무 몽둥이로 머리통을 칠 때	번뜩이던 눈	
	사내들	내쫓을 때	사람을 잡아먹으려는 것 말고도 귀찮고 업신여기는 뜻을 담은 눈	
토곡사	디바오	훈계할 때	노려보는 눈	
시내 길거리	구경꾼	조림돌림 당할 때	둔하고 또 날카로워 벌써 그의 말을 씹어 먹었고 또 그의 몸뚱이 이외에 또 무엇인가를 삼키려고 하는 여태껏 보지 못한 눈	잡아먹힘(눈알들이 하나로 합쳐졌나 싶더니 그의 영혼을 물어뜯었다)

51) 魯迅, 「阿Q正傳」, 『魯迅小說全集』, 武漢, 長江文藝出版社, 2005, 109쪽; 林禮明, 41-42쪽.

52) 那雙眼睛, 是狼的眼睛, 也是人的眼睛, 阿Q太熟悉了。趙太爺甩他耳光時, 瞪着的是這樣的眼睛; 地保訓斥他時, 也是瞪着這樣的眼睛; 趙秀才手攥大竹杆打他的頭時, 那眼睛忽閃忽閃的, 也是這樣; 趙府的“男人”像回復乞丐一樣趕他走時, 說:“沒有沒有! 你出去!” 那眼睛除了要吃人外還增加了煩厭和鄙視。林禮明, 41쪽.

아Q에게서 사람을 잡아먹는 이리의 눈이 사람을 억압하는 폭력자의 눈과 겹치면서 날카롭고, 흉측하고, 또 멀시, 업신여김, 심지어 자신의 영혼까지도 물어뜯는 공포의 원흉이기에 뿌리 깊은 증오를 갖고 있다. 그것은 식인자들에게 대항할 수 없는 아Q의 죽음의 공포, 두려움, 비겁함 같은 자기 약점의 집합체이며, 아Q의 기억의 저장소에 도사린 것이었고, 기억의 상자에 가두어두어 ‘과거가 숨통을 조이게’ 된 것이었다.⁵³⁾

(2) 팽조팔백수신약 생산지

『광인일기』에서 이리는 하이어나처럼 사람을 잡아먹을 뿐 아니라 ‘이리굴’에서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이야기가 여러 번 등장한다. 우 어머미 자오씨나루터에서 허 선생을 만났을 때, 허 선생이 우 어머미 임신한 사실을 알고 준 약이 있었다. 루쉰의 『약(藥)』에서 화샤오완(華小栓)의 어머니가 그에게 약을 먹였듯이,⁵⁴⁾ 또 허 선생이 일러준 대로⁵⁵⁾ 우 어머미 만두를 만들어 아Q에게 먹였다.

……장터에서 사온 만두를 쪄게 약을 안에 쏟아 붓고 만두에 스며들게 했다. 다시 연잎 한 장으로 만두를 싸서 아궁이 속에 넣었다. 검붉은 불꽃이 타오른 뒤에 토곡사 안은 이상야릇한 냄새로 가득 찼다.⁵⁶⁾

53) 루스 이스트햄, 김경희 옮김, 『기억의 상자(The Memory Cage)』, 서울, 랜덤하우스코리아, 2011, 284-285쪽; 스미스 가족의 할아버지-아버지-입양아 알렉스(Alex)로 이어지는 삼대가 각각의 상처를 안고 고통 받지만, ‘가족’끼리 서로 보듬어주고 치유해 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마지막에 할아버지는 “과거를 상자에 가둬두었다가는 과거가 네 숨통을 조이게 돼. 결국에는 널 산 채로 집어삼키고 말아…….” 하고 말한다.

54) 魯迅, 『藥』, 『魯迅小說全集』, 武漢, 長江文藝出版社, 2005, 29쪽.

55) 허 선생은 당부하며 말했다. “가져가서 만두에 적셔서 먹게, 아니면 구워서 따뜻한 물에 타서 먹든지. 이 약이 좋아, 팽조팔백수신약이네.” 何先生叮囑說: “帶回去吧, 用饅頭蘸着吃, 或者烤焦了用溫水沖服. 這藥好, 彭祖八百壽神藥.” 林禮明, 62쪽.

56) ……從集鎮上買來的饅頭, 掰開, 從龍嘴銅酒壺裏倒出“藥”, 讓饅頭蘸上. 再拿來一片荷葉, 把饅頭包起來, 放進灶口裏. 一陣紅黑的火焰過去後, 土穀祠裏瀰漫着一種奇特的味道. 林禮明, 64쪽.

처음부터 아Q는 그 약이 무슨 약인지 모르고 먹었지만, Q왕 두목이 된 뒤에 구주 선생이 끊이지 않고 갖다 대는 보양약이 바로 허 선생과 구주 선생 등의 화수분 ‘팽조팔백수신약’이다. 이 약명 앞에 붙은 팽조는 8백 살까지 살았다고 하는 전설 속의 인물이다.⁵⁷⁾ 그러나 이 약의 재료는 핑이 아니다.

“서둘러 가야 한다. 썩어서 고약한 냄새가 나면 안 돼. 이리골에 가는 대로 자오구이 영감을 찾아 시체를 내려놓은 뒤에 그 분에게 팽조팔백수신약을 좀 달라고 해. 절대로 그르치면 안 된다. 얼른 가져라!”⁵⁸⁾

돌아온 빈 수레 가운데 한 곳에는 구주 선생이 주문한 팽조팔백수신약이 실려 있다. 구주 선생과 허 선생은 이 약의 ‘원료=사람’을 조달한다. 그들은 모두 먹었고, 또 고객에는 자오 나리, 자오 수재, 첸 나리, 거인은 물론이고, 덩 거인(丁舉人), 넷째 나리(四爺), 칠 대인(七大人), 룡 나리(榮大爺), 루 넷째 아저씨(魯四叔)⁵⁹⁾ 등 그 일대 명사란 명사는 죄다 들어있을 것이다.

허 선생과 구주 선생은 재료 공급과 운반책이고, 자오구이 영감은 이리골에 터를 잡고 약을 만들어 파는 사장이다. 아Q 자신도 모른 채로 아Q가 맡은 일은 더욱 많은 싸움거리를 만들어 싸움터에 나가서 더욱 많이 사람을 죽게 하

57) 신화전설에 의하면, 팽조는 유복자로 태어났고, 어머니도 그가 세 살 때에 사망했다. 그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며 떠돌이 생활을 했다. 어른이 된 어느 날 그가 울창한 숲 속에서 생전 처음 보는 오색찬란한 핑 한 마리를 잡게 되었고 탕을 끓였다. 그는 자신이 먹은 것이 아니라 궁리 끝에 하늘에 계신 임금님에게 그 핑탕을 바쳤다. 하늘에 계신 임금님은 팽조의 정성에 대한 보답으로 그 핑의 깃털 수만큼 목숨을 연장시켜 주겠다고 말했다. 팽조가 그 핑의 깃털을 세어보니, 8백 개였다. 그가 767세가 되었을 때도 아주 건강했고 낮빛이 붉고 머리칼이 검었다. 그 동안 그는 부인 49명을 얻었고 아들 54명을 낳았다. 하늘에 계신 임금님의 말씀에 의하면, 팽조에게는 긴 수명과 신선이 될 복이 없었으나 모두 핑탕 한 그릇에 대해 보상한 것이라고 한다. 羅傑, 「彭祖的故事」, 『中外神話故事: 原著無障礙閱讀版』, 天津, 天津教育出版社, 2014, 74쪽.

58) “急馳急至, 避免腐臭, 一到狼子村, 即找趙貴翁, 卸下屍體後再向他要些彭祖八百壽神藥. 切勿誤. 可以走了!” 林禮明, 158쪽.

59) 덩 거인은 「쿵이지」, 넷째 나리는 「장명등(長明燈)」, 칠 대인과 룡 나리는 「이혼(離婚)」, 루 넷째 아저씨는 「복을 비는 제사」에 나오는 권세가들이다.

고, 더욱 많이 죄를 물어서 처형하라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그가 전쟁터에서 죽인 적이든, 그가 억지 죄를 물어 처형한 수하이든 간에 모두 그들에게 제공 되는 약제인 것이다. 본래 의심병을 가진 아Q가 이 약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을 하지 않는다. 이리에 대해 골수의 원한과 공포를 갖고 있는 아Q가 이리골 출신의 구주 선생과 허 선생을 오른쪽 왼쪽 수하에 둔 것이다. 아Q는 승리의 성찬, 즉 팽조팔백수신약을 먹는 일과 승리를 감상하는 일, 즉 위세를 부리는 일만 했다. 아Q에게는 이리골이 사람을 잡아먹는 온상이라는 사실을 파헤칠 능력이 없다. 이는 아Q의 새 삶에도 진정한 ‘각성’이 결여되었고 ‘참사람(眞人)’이 되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2) 아Q 사적관

『아Q정전』에서 아Q는 웨이쥡의 가장 하층민이며 동네북이었다. 그는 권력, 전통, 폭력과 금전의 힘에 눌려 하루살이 목숨을 부지하기에 급급한 ‘버러지’였다. 그가 그렇게 자신을 비하하며 스스로 위안거리를 만들어가면서 근근이 살아갔어도 그의 삶에서 죽음까지 어느 누구도 동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아Q는 『아Q정전』의 아Q가 아니다. 아Q가 “나도 예전에는 네까짓 놈보다는 훨씬 잘 살았어!”하고 말할 때는 허풍이었을지 몰라도 쥐구멍에도 별들 날이 있는 법, 이제 아Q는 웨이쥡 일대에서 가장 권세 있고 돈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아Q의 수하는 변함없는 충성을 표시하기 위해 그의 사적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미화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성과는 첫째, 사적관과 공적비를 세웠다. 둘째, 아Q의 일대기를 편찬했다.

아Q가 시내로 본거지를 옮긴 뒤, 얼마 되지 않는 시간 동안에 아Q가 지냈던 장소마다 공적비를 세운 사적관을 지어 일반 대중에게 개방했다.

자오씨나루터의 뱃사공 궁씨네 마당에 조성한 사적관이 가장 장관이었다. 아Q가 당시에 사용한 무기, 탄약, 옷가지, 장식품, 술단지, 밥그릇, 표주박, 대야, 지령문서, 붉은 도장 등이 진열되고, 그 옆에서는 상세한 설명이 적혀 있

었다. 피로 얼룩진 하얀 셔츠 두 장이 걸린 것은 물론이다. 사적관 내부 1층 홀 한복판에 놓인 관이 가장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웨이쑹의 사적관은 자오 나리 댁 마당에 세워졌다. 자오 집안과 아Q가 인척이므로 사적관건립부가 자오 저택을 사들였고, 자오 집안사람들은 시내로 이사했다. 토곡사,⁶⁰⁾ 정수암 등도 모두 사적관의 참관 코스에 들어갔다.

다음으로 아Q의 일대기 『Q장 어른의 성공스토리(Q莊家起居錄)』 편찬도 중요한 사업이었다. 이를 위해 가오얼추와 쓰밍이 ‘자왈시운(子曰詩云)’과 ‘지호자야(之乎者也)’하는 문인들을 모아 태사부를 설립했다. 『Q장 어른의 성공스토리』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뤼웨이(呂緯), 팡취(方綽), 웨이렌(魏連), 쥐안쯔(娟子) 등이 아Q의 풍과 문제로 인해 이견이 생겨 태사부를 떠났다. 이들은 태사부를 나간 뒤에 쿵이지와 광인과 합세해 연명으로 『Q장 어른의 성공스토리』 편찬을 반대하는 ‘상소’를 올려서 6명이⁶¹⁾ 모두 체포되었다. 이들은 감방에서 처형을 기다리던 중에 아Q의 사면 석방령에 따라 모두 무죄 방면되었다. 소말동굴 꼭대기로 아Q가 구주 선생과 허 선생을 데리고 순시를 나왔을

60) 高行健, 『靈山』, 台北, 聯經, 1990, 465쪽; 2000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가오싱젠(1940-)은 『영혼의 산』에서 이렇게 말했다. “루쉰이 그려낸 그 하찮고도 하찮은 인물 아Q가 밤을 보내고 비바람을 피한 토곡사까지도 새로 수리해 페인트로 산뜻하고 눈부시게 칠했고 당대 서예 대가가 쓴 편액도 걸어 놓았다. 이는 아Q가 도적질을 해서 머리통이 잘리는 그 순간에는 절대 죽은 뒤 이렇게 영광을 누릴 줄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61) 왕푸런은 『『의침』과 『방황』의 문학성 분석(『吶喊』『彷徨』綜論)』에서 루쉰 소설의 인물 계보에 대해 다섯 가지로 분류했다. 즉, ① 봉건사상과 봉건적 윤리관에 대해 자각적으로 반항한 우선 각성한 지식인, ② 봉건사회와 그 사상계의 진정한 ‘주인’인 지주계급 통치자, ③ 지식인 속의 봉건사상과 봉건적 윤리관의 옹호자, ④ 봉건사회의 사회적 여론계의 각종 인물, ⑤ 봉건사상과 봉건적 윤리관의 정신과 육체 면에서의 전면적 피해자인 노동대중과 하층 봉건지식인 속의 비극적 주인공이다. 王富仁, 『中國需要魯迅』, 合肥, 安徽大學出版社, 2013, 79쪽; 가오얼추는 「가오 선생(高老夫子)」, 쓰밍은 「비누」, 뤼웨이는 「술집에서(在酒樓上)」의 뤼웨이푸(呂緯甫), 팡취는 「단오절(端午節)」의 팡취안취(方玄綽), 웨이렌은 「고독한 사람(孤獨者)」의 웨이렌수(魏連歿)이다. 린리밍은 이들에 대해 모두 “자왈시운’과 ‘지호자야’하는 문인들로 묘사했는데, 왕푸런의 ③과 ④에 해당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때, 그곳에 격전 중에 꺼냈던 하얀 천(투항하려고 들었던 것)이 아직도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구주 선생에게 자기 뜻을 기초하도록 명했다.

……아Q의 보좌관, 고위참모, 특등책사 구주 선생과 아Q부의 형 집행대장 허 선생이 아Q를 수행해 이곳에 이르러 모두 아Q의 공덕을 노래하였다. 이에 마애를 새겨 본보기로 삼노라.⁶²⁾

이 기념사가 다 새겨진 뒤에 많은 관광객을 끌어 모았다.

이렇게 아Q 사적관을 짓고 공적비를 세우고 아Q평전을 편찬한 것은 모두 루쉰이 『아Q정전』을 써준 데서 배운 것이다. 처음에 아Q가 유명해진 것도 루쉰이 『아Q정전』을 써주었기 때문이다. 『아Q정전』이 없었다면 오늘날 아Q가 그렇게 수많은 중국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지는 못했을 것이다.

5. 나오며

루쉰의 ‘아Q’를 바탕으로 린리밍은 『아Q후전』에서 다음과 같은 주제와 소재를 담았다.

첫째, 루쉰이 아Q에 대한 단죄를 통해서 진정한 각성을 역설하였듯이, 린리밍 역시 『아Q후전』에서 진정한 각성 없이, 생명에 대한 진정한 존중 없이 행해지는 모든 혁명은 아Q의 분신들만 수없이 만들어내고 식인의 수단이 되며 사회 개혁과 발전은커녕 역사를 원점으로 되돌려놓을 것임을 드러냈다.

둘째, 루쉰이 지적한 바대로 정신이 병 들면 노예, 본보기, 구경거리가 되고 목숨마저 잃고 말 것이다. 『아Q후전』에서 주 선생과 허 선생이 이리골에서 비밀리에 제조해 가져오는 팽조팔백수신약을 먹은 아Q는 약골에서 강골로 바뀌었고 철옹성 ‘Q왕의 두목’이 되었지만 결국은 꼭두각시였을 뿐이다.

62) ……阿Q佐臣、高級參謀、特等軍師古久先生和阿Q府行刑隊長何先生隨阿Q至此，皆頌阿Q功德，刻此磨崖，以爲表經。林禮明，345쪽.

셋째, 루쉰이 아Q에게 '혁명 금지'한 것은 물론 기득권 세력에 대한 비판과 신해혁명의 내막을 폭로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걸 무너만 바꾸고 속 알맹이가 바뀌지 않는 혁명은 진정 성공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Q후전』에서 아Q가 투신한 혁명은 루쉰식의 '혁명 금지'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 듯이 보이면서도 루쉰의 판단이 백번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넷째, 『광인일기』에서 구주 선생의 낡은 장부와 허 선생의 진맥이 식인의 원흉이었다면, 『아Q후전』에서 그들이 조제한 '팽조팔백수신약'은 식인의 증거이다. 구주 선생이 '혁명'의 이름으로 아Q를 조종하고 '팽조팔백수신약'을 먹이며 식인 습관을 길러주었다.

다섯째, 아Q는 원래 1911년 당시에 식인의 희생자가 되어야 했던 인물인데, 『아Q후전』에서 다시 살아나 식인의 역사에 동참하였다. 아Q '살해'는 역사를 '바로 잡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아Q가 희생자이든 식인자이든 간에 아Q를 죽인다고 희생자가 없어지고 식인 습관이 근절되는 것은 아니다. 아Q가 죽으면 그도 약재로 공급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린리밍은 루쉰의 '아Q'가 지닌 기존의 뼈대에 살을 붙여 장수하는 아Q의 일대기를 그려냈다. 기존의 작품, 특히 루쉰의 소설처럼 확고한 '위상'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이전의 작품에 대한 '초월' 아니면 '전복'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린리밍의 가장 큰 고충은 '초월'과 '전복' 사이에서 루쉰이 가차 없이 단죄한 '아Q'에게 어떻게 새 생명을 부여하고 또 어떻게 '새' 아Q를 창조해내는가 하는 데 있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린리밍은 '완전한' 전복의 어려움과 '뛰어넘기'의 한계도 드러냈다고 하겠다.

우 어머는 몸 받쳐 아Q의 목숨을 살렸지만, 아Q는 무너만을 바꾸었을 뿐이고, Q짱 두목의 내실은 여전히 아Q의 정신승리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아Q의 약점을 Q짱 두목의 장점으로 둔갑시킨 사람은 구주 선생이었다. 아Q의 혁명 생애는 마침점이 없다. 그는 팽조팔백수신약을 계속 먹으며 몸의 힘을 키우고 사람의 피와 살로 제 욕심을 채우고 인육의 향연을 벌인다. 이 인육잔치가 역사상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 알 수 없고, 또 앞으로 얼마나 지

속될지 알 수 없다.

Q장 산채는 굳고 단단해져 ‘합법성’의 이름 아래 자행되는 살인과 식인의 온상이 되었다. 문제의 심각성은 아Q가 식인 사회의 피해자이면서 몰지각하고 충동적인 가해자가 되었다는 데 있다. 아Q는 배후에서 조종하는 대로 뺨을 놓는 자이고, 구주 선생은 뺨을 놓을 자리를 찾는 자이고, 허 선생은 뺨에 걸린 사냥감을 처리하는 자이다. 아Q가 사람들에게 잡아먹힌 피해자였다면 Q장 두목은 사람을 잡아먹는 자이다. 이는 역사와 전통이 남긴 악습에서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그리고 뿌리 깊은 병든 사회의 개혁과 사람의 정신 개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參考文獻

- 루스 이스트햄, 김경희 옮김, 『기억의 상자』, 서울, 랜덤하우스코리아, 2011.
왕경국, 『유식의 즐거움』, 휘닉스, 2006.
크리스토프 하인, 노영돈 옮김, 『아Q정전』,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사, 2006.
北京魯迅博物館魯迅研究室, 『魯迅研究資料8』, 北京, 1981.
高行健, 『靈山』, 台北, 聯經, 1990.
林禮明, 『阿Q後傳』, 福州, 海風出版社, 1994.
魯迅, 『魯迅小說全集』, 武漢, 長江文藝出版社, 2005.
羅傑, 『中外神話故事』, 天津, 天津教育出版社, 2014.
王富仁, 『中國需要魯迅』, 合肥, 安徽大學出版社, 2013.

Abstract

Reading 'Cannibalism' Subject in the Lin-Liming's *The After Story of Ah Q*

Bae, Do-im

Lu-Xun berated the history of cannibalism through the lips of a madman in his *A Madman's Diary* which was published in 1918. Also, the writer strongly argued in *The True Story of Ah Q* which was published from 1921 to 1922 that the Chinese mind should be transformed through the Ah Q's 'Approach of Mental Victory'. In 1994, Lin-Liming published *The After Story of Ah Q* in which Ah Q got rescued from being nearly perished by getting the helps of Wu-ma and Mr. He, got married to Wu-ma, had two sons, and took part in the Revolution.

Ah Q had Mr. Gujiu as his tactician under him during the Revolution, got victory after victory, and became the head of Q-Zhuang. In his victories, there followed so many innocent victims. While he was a victim captured by people before, and now the head of Q-Zhuang became someone who made victims, who eat people. Ah Q was a trapper, unknowingly, while Mr. Gujiu was a person who searched for the trap places. Mr. He handled the game that was caught in the traps. Mr. Zhao-Gui was a manufacturer and supplier of Eight Hundred Peng God of Longevity Medicine which was made with the materials(which was human beings) that they sent him, living in Wolf Village. The story showed that how hard it is to get rid of the deep-rooted evil practice, to reform the sick society and to transform man's mind.

Key words : cannibalism, overwrite, Ah Q, Mr. Gujiu, Mr. He, revolution

투 고 일 : 2017. 10. 10. / 심 사 일 : 2017. 10. 15.~ 2017. 11. 15. / 게재확정일 : 2017. 11. 20.